26 플라스틱가공품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만성골수성백혈병

성별 남 **나이** 31세 **직종** 플라스틱가공품 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 요

근로자 나ㅇㅇ는 ㅇㅇ엔지니어링에 2004. 3. 2. 입사하여 외부에서 의뢰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3D프로그램 작업, 캠작업 및 기계 가공작업을 통해 금형샘플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던 중 2008년 8월 말 ~ 9월 초경에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엔지니어링은 플라스틱가공 모형제품 제조업체로 3/D MOCK-UP, 모델링 & 기구설계, 진공주형, 간이금형을 만든다. 나○○는 연구소에서 의뢰된 설계도면을 가지고 컴퓨터로 3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캠작업(머시닝센터)후 기계에 의하여 샘플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기계가 샘플을 만들 때 기계 값을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제품 확인, 샌딩, 사상, 후가공, 조립과정에서 클로로포름, 순간접착제 등을 미량 취급하고 있었다. 작업의 80%는 사무실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근무하였고, 20%는 현장에서 작업하였다. 주중 근무시간은 08:30~17:30으로 되어 있으나 주로 20:00~22:00쯤 퇴근하였다고하고 토요일은 12:30분 퇴근, 일요일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의 벌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결과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장 방문조사에서 ○○엔지니어링에 전리방사선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취급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골에서 살았고, '99년 11월 군 제대후부터 입사 전까지 컴퓨터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흡연은 2007년까지는 1주일에 1~2갑 피웠고, 2007년 말부터 2008년 아프기 전까지는 하루에 1갑~1 갑반정도 피웠다. 음주는 '96~'97년도에는 1주일에 1회 정도 마셨는데 1회에 2홉들이 2~3병마셨으며, 군 제대 후에는 1달에 1회 정도 마셨는데 1회에 2홉들이 2~3병 마셨다고 했다. 2001년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현직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화학약품을 취급한 적이 없고 가족은 모두 건강하다고 하였다. 과거 방사선치료를 받거나 방사선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골수이식은 받지 않았다. 나○○는 2008년 8월 말에서 9월초에 일하다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인근 ○○병원의 소화기 내과에서 피검사, CT촬영한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 하였다. 현재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이다.

4 결 론

근로자 나이이는

- ① 백혈병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벤젠 및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 ② 작업경력이 4년 5개월로 백혈병 발생의 잠재기가 짧으므로,

현재의 결과만을 가지고 작업관련성을 판단할 때, 작업 중 노출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